

#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 Marital Quality, Barriers to Divorce, Everyday Stress and Post-Divorce Adjustment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손정연\*\*  
교수 한경혜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Graduate Student : Son, Jeong-Yeon  
Professor : Han, Gyoung-Ha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divorce process on post-divorce adjustment.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pre-divorce marital quality, perceived barriers to divorce at the time of considering divorce, and the level of everyday stress after divorce on post-divorce adjustment of men and women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Data gathered from 147 men and 208 women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e-divorce marital quality, perceived barriers to divorce at the time of considering divorce, and the level of everyday stress after divorc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post-divorce adjustment of divorced men and women depending on the stages of divorce proces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aspects of divorce process and adjustments differ according to the sub-dimension of post-divorce adjustment. Third, divorce process functions differently for divorced men and women. The results show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divorce process, including both pre-divorce and post-divorce circumstances in order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post-divorce adjustment of men and women.

▲주요어(Key Words) : 이혼한 성인 남녀(divorced men and women), 이혼 과정(divorce process),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이혼 장애 요인(barriers to divorce), 일상생활 스트레스(everyday stress), 이혼 후 적응(post-divorce adjustment), 성별차이(gender difference)

### 1. 문제제기

이혼은 '결혼관계의 법적 종결'이라는 사건 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다측면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다(한경혜,

1993a; Price & McKenry, 1988). Booth와 White(1980)가 지적한대로, 이혼 과정은 결혼생활의 문제를 지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혼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 및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후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양상의 문제와 적응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혼 상황이 부부나 자녀 모두에게 있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후 변화하는 가정 상황에서부터 시작

\* 본 연구는 2003년도 두뇌한국 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 저 자 : 손정연 (E-mail : hema23@snu.ac.kr)

하기 때문에(장혜경·민가영, 2002), 즉 법적인 혼인관계의 해소 이전에 소위 정서적 이혼이 일어나므로 그 때부터 이혼과 관련하여 적응을 요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이혼이 결혼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혼 후의 적응을 예측함에 있어 지난 결혼생활의 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가 하면 이혼여부는 결혼관계에서 얻는 '보상'과 이혼에 따르는 '비용'의 비교점에서 결정되는데, 이 때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도 주저하고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많을 경우 불행한 결혼생활도 지속되는 반면, 이러한 요인이 적을 경우에는 행복한 결혼도 해체될 수 있다(Booth & White, 1980; Levinger, 1965, 1976). 즉, 어떠한 결혼생활 끝에 발생한 이혼인지,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요인들로 망설이게 되었는지에 따라 이혼 후 적응수준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혼 후 적응을 탐색함에 있어 이혼 후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와 같이 법적 이혼 직후의 상황과 관련된 변수에만 치중하여(Amato, 2000; Kitson & Morgan, 1990; Wang & Amato, 2000), 지난 결혼생활의 질이나 이혼 고려시 장애로 지각되는 요인과 같은 이혼 전의 과정적 특성은 간과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할 때, 이혼 후 적응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법적 이혼 전 및 후의 경험까지 포함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 전 과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혼 전 결혼의 질 및 이혼 고려시 장애요인, 이혼 후의 상황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 어떠한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였는가에 따라 이혼 후 적응수준은 달라진다(Thompson & Spanier, 1983; Wang & Amato, 2000). 즉,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이혼과 결혼생활에 비교적 문제가 없었거나 본인이 원치 않았던 이혼인 경우,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한경혜, 2005). 선행연구에서는 전 배우자와 결혼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활동을 공유하고, 결혼생활을 잘해왔었다고 회상하는 사람일수록 이혼을 잘 수용하지 못하며(Chiriboga & Thurnher, 1980), 지난 결혼생활을 불행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혼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된다(Kitson & Sussman, 1982). 이와 같이 이혼 전 결혼의 질은 이혼 후 적응수준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

을 결혼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적응수준을 이혼 전 결혼생활의 양상과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이혼의 장애요인은 결혼생활의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인 동시에 결혼관계가 해체될 때 예견되는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여(한경혜·김주현·강혜원, 2004),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른 이혼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혼장애요인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혼에 대한 장애가 높을수록 이혼 후 적응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Berman & Turk, 1981; Hetherington, Cox & Cox, 1976, 1977). 하지만, 이혼 장애 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이경성, 2001; 한경혜·이정화, 2002) 어떤 요인들이 이혼을 억제하고 결혼을 유지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실제 이혼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이혼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을 장애요인으로 지각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의 장애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혼 후 직면하는 가족문제, 사회적·대인적 관계 문제, 실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 왔다(성정현, 1998; Berman & Turk, 1981). 이혼자들은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 및 부모로서의 역할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가정 내 역할의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겪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기도 하고(성정현, 1998), 반대로 높은 통제감과 성숙감을 경험하기도 한다(Kitson, 1992; Marks, 1996). 이와 같이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와 적응간 관련성에 있어서 실증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아직 합의된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혼과정에서의 경험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을 주제로 하는 국내의 연구들은 이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데다(김혜련, 1995; 노영주, 2001; 문현숙·김득성, 2000; 성정현, 1999; 이재경, 2000; 장혜경·민가영, 2002), 남성과 여성을 모두 살펴본 이혼 관련 연구들(한경혜·이정화, 2002; 한경혜·강유진·한민아, 2003; Hemström, 1996)에서도 이혼 후 어려움과 관련된 남녀간 차이만을 언급할 뿐이어서 이혼 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하여 이혼남녀의 적

응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혼의 과정에서나 이혼 후의 생활에서 남녀가 겪는 문제가 같지 않으므로(이재경, 2000; 한경혜, 1993a; Crane, Soderquist & Gardner, 1995)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적응'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왕석순·서병숙, 1995), 아직까지 국내의 연구들은 이혼 후 적응을 우울감, 자긍심 등의 심리적인 면에만 치중해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혼 후 적응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변화함에 따라 적응을 측정하는 척도에 있어서도 다차원적인 복합척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옥선화·성미애, 2004; 한경혜, 1993a; Wang & Amato, 2000; Hughes, Good, & Candell, 199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을 측정함에 있어 이혼자의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자긍심' 뿐만 아니라 이혼 행동 자체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이혼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혼 전 과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혼 전 결혼의 질 및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의 상황적 특성인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혼 과정에서의 경험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 1. 결혼의 질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 결혼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포기하고 이혼에 뒤따르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한 것이므로, 지난 결혼생활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Hopper, 2001). 그런가 하면, 많은 이혼자들이 현재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는데(Kirkpatrick, 1953, Booth & White, 1980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계를 끝내고 이혼을 선택했다고 해서 지난 결혼생활의 질이 반드시 낮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혼 전 결혼의 질과 현재의 적응수준 간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지난 결혼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혼 후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한다(Booth & Amato, 1991; Kitson & Sussman,

1982; Wheaton, 1990). 이는 이혼 전,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해 왔던 노력과 시간을 이혼 후에 변화한 삶의 여러 영역에 투자하는 등 오히려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난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이혼 후 현재의 적응수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Berman & Turk, 1981),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현재의 적응수준을 낮추는 것만은 아님을 시사하여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성과 여성은 결혼생활에서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결혼생활의 질에 대한 인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이영자·장영애, 2002; 이재경, 2000; 정문자·이종원, 2003; Amato & Rogers, 1997), 결혼생활에서 문제를 느끼는 영역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Thompson & Walker, 1989).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이혼 후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남녀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지난 결혼생활을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Baum, 2003; Diedrick, 1991; Thompson & Walker, 1989).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 후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경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이혼 후 적응수준이 높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Diedrick & Patricia, 1991, Kitson & Sussman, 1982에서 재인용). 여성과는 반대로, 남성은 대체적으로 전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으로 인해(이재경, 2000), 이혼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Braver & O'Connell, 1998, Umberson & Williams, 1993, Braver, Shapiro, & Goodman, 200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이혼 전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은 이러한 요인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남녀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이혼 전 결혼의 질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실증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 2. 이혼 장애 요인

이혼 장애 요인은 자녀에 대한 걱정, 경제적 이유, 사회의 부정적 시각, 결혼에 대한 헌신, 종교적 이유,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곽배희, 1993; 이경성, 2001; 한경혜, 1993a; 한경혜·이정화, 2002; Heaton & Albrecht, 1991; Previti & Amato, 2003).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이경성, 2001; 한경혜 외, 2004; Previti

& Amato, 2003; White, 1990)에서 중요한 이혼 장애 요인으로 언급한 이혼 후 삶의 도구적·정서적 측면에 대한 염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른 이혼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인 이혼 장애 요인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혼에 대한 장애를 많이 지각할수록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Berman & Turk, 1981; Hetherington et al., 1976, 1977, Moore, 1998, 김수정·권신영, 2001에서 재인용). 그런가 하면, 이혼을 먼저 제기한 배우자의 경우, 이혼에 뒤따르는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불행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혼의 장애요인을 높게 지각했다고 해서 이혼 후 적응이 반드시 어려운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hompson & Spanier, 1983). 이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도 막상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정당화하고 이혼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을 치른 이혼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혼 후 적응수준이 낮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에서 얻는 보상이 다르고, 이혼에 따르는 비용에 있어 남녀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혼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에도 남녀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한경혜 외, 200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이혼 후 경험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도구적인 측면에 대한 염려를 장애요인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고, 남성은 이혼 후의 외로움 등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 대한 염려를 장애요인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한경혜 외, 2004; Belle, 1987).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관계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이 높은데다 가사노동 등 이혼 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적절히 사회화되지 못하여 여성보다 이혼 후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Johnson, 1977, Stone, 2001에서 재인용).

한편,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통념을 내면화하여 결혼은 깨지면 안 되는 것이고 이혼자를 '실패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더 느끼며(이경성, 2001), 가족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이재경, 2000) 가족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변화 속도가 여성에 비해 느린 것으로 보고 된다(한경혜, 1993a). 이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통념을 장애 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국내 연구(한경혜 외, 2004)에서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이혼의 장애요인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남녀에 따라 상이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혼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 반면, 남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등의 확대가족원 가족들에 대한 걱정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 정도에서의 남녀차이는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남녀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가 없다. 나아가서, 이혼 장애 요인의 하위 영역에 따른 세부적인 측면에서 성차를 탐색해 본 연구도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혼 장애 요인의 구체적 영역에 있어 남녀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영향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 3. 일상생활 스트레스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이혼 후 겪는 어려움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김영희, 1996; 옥선화 외, 2002). 이혼자들은 이혼 장애 요인으로 빈번하게 지적되었던 문제인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시각,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의 문제를 이혼 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3a; Berman & Turk, 1981).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변화순, 1996; Berman & Turk, 1981; Bloom, Asher, & White, 1978)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이혼 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제관련 문제, 가족관련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후 적응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된다(Berman & Turk, 1981; Cohen & Dekel, 2000; Hetherington et al., 1976; Weitzman, 1985). 일반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족의 도구적 지원은 이혼자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지만(Spanier & Castro, 1979; Weiss, 1975), 이혼자가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오히려 부담을 느껴 이혼 후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연구(Spanier & Hanson, 1982)도 있다. 특히, 이혼자들은 이혼 후 가족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부모, 형제나 친척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족

관계의 상실이 이혼자의 적응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Berman & Turk, 1981; Thompson & Spanier, 1983).

한편, 이혼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는 이혼자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Kistner, 1994; Yang, 1999), 대부분의 이혼자들은 이혼 후 기존의 친구 관계망이 축소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관계망을 가지는 등 대인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이혼과정 전반에 걸쳐 이혼자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므로 (Hunt & Hunt, 1977, Price-Bonham & Balswick, 1980에서 재인용), 이혼자가 사회적 참여를 많이 할수록 적응수준이 높아진다(Berman & Turk, 1981; Raschke, 1977; Sansom & Farnill, 1997; Spanier & Castro, 1979). 그런가 하면 이혼 후 달라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 이혼 후에 변화한 자아정체성을 재정 의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등 오히려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어(Hetherington et al., 1977, Berman & Turk, 1981에서 재인용), 사회적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이 반드시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혼 후 남성과 여성 모두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Berman & Turk, 1981; Bohannon, 1970; Goode, 1956; Hetherington et al., 1976, 1977; Mendes, 1976),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남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아내에게 의존하여 온 남성들은 이혼 후 정서적인 불안, 일상생활 유지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한경혜, 1993a; 변화순, 1995; Arendell, 1987; Kurz, 1995), 여성들은 이혼 후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상태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심리적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경, 2000; Wallerstein, 1986, Yang, 1999 재인용).

이와 같이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와 적응 간 관련성에 있어서 실증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아직 합의된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별로 다양한 결과에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지 않아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에서 나타나는 남녀차이는 이러한 요인들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남녀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에 따른 세부적인 측면에서 남녀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영역이 따로

있을 것이며 적응에의 영향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 4.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적응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예전에는 재혼을 하거나 전 배우자와 접촉을 완전히 끊는 단계가 되면 이를 적응이라고 하였으나(한경혜, 1993a), 이제는 이혼 후 적응을 하나의 단절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적응'이라는 개념 자체가 심리사회적인 재영역을 포함하는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재조직의 과정이며 스스로를 자율적인 모습으로 규정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문현숙·김득성, 2000; 왕석순·서병숙, 1995; Kitson & Morgan, 1990).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이혼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을 심리적 측면에만 치중해서 살펴보고 있어 '이혼 행동 자체에 대한 인지적 평가'라는 중요한 측면을 간과해 왔다. 이는 이혼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혼이 당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혼 후 적응으로 보는 서구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Chiriboga & Thurnher, 1980; Goode, 1956; Hetherington, Cox & Cox, 1978; Thompson & Spanier, 1983; Weiss, 1975). 우리보다 앞서 이혼연구를 발전시켜온 서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이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이혼을 '인생에서의 실패'로 여기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Booth & Amato, 1991; Thompson & Spanier, 1983; Wang & Amato, 2000). 그런데 이러한 이혼에 대한 후회정도 및 수용정도는 개인이 어떠한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였는가와 함께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혼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등의 이혼과정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Thompson & Spanier, 1983; Wang & Amato,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이혼 행동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이혼 후 적응척도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대부분의 이혼자들은 '이혼 전 결혼상태에 있던 자신'과 구별되는 자신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이혼 후 적응 과정에서 독립된 자아정체감을 계획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Kistner, 1994; Weiss, 1975).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자아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수용하는 것은 이혼자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혼은 자긍심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

로 보고되지만(Marks, 1996; Weingarten, 1987, Yang, 1999에서 재인용), 이혼이라는 위기 과정이 오히려 개인의 성숙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Kitson, 1992; Rice & Rice,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을 측정하는 두 번째 종속변수로 '자긍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혼의 과정에서나 이혼 후의 생활에서 남녀가 겪는 경험이 같지 않으므로(이재경, 2000; 한경혜, 1993a; Crane, Soderquist & Gardner, 1995) 이혼 후 적응 양상이나 과정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혼 후 적응수준에서의 성별차이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혼 여성이 이혼 후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적응을 더 잘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된다(이재경, 2000; Diedrick, 1991; Wallerstein, 1986).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혼 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이혼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들도 있다(Aseltine & Kessler, 1993; Shapiro, 1996; Simon & Marcussen, 1999). 그런가 하면, 이혼 후 남성과 여성 모두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성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우울감을 경험하는 등 이혼 후 적응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제시된다(Booth & Amato, 1991).

이와 같이 이혼 후 적응 수준의 성별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혼 후 적응수준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혼 후 남성과 여성의 적응수준을 고찰함에 있어, 적응의 두 가지 하위차원에 따라 구체적인 적응양상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혼 과정에서의 경험이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이혼한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는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이혼한 성인남녀의 이혼 후 적응수준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이혼한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1. 이혼한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이혼한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혼 경험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통계청이 2003년도에 발표한 '2002년 혼인·이혼 통계'를 기초로 하여 남녀 각각에 대해 연령별 이혼자 구성비를 산출하였으며, 여기에서 산출된 연령대별 비율에 맞춰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혼과정에 대한 회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혼한지 5년 이내의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이혼자들을 위한 각종 모임 및 단체와 일반 기관들 중 이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sup>1)</sup>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총

1)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이혼자 동호회, 한부모 가정 연구소, 이혼가족 지원센터, 기러기 모임 등)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가장 관련 프로그램 수강자, 복지관, 가정법률 상담소 및 재혼 상담소

396부 중 이혼 후 5년이 넘는 것과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355부(남성 147명, 여성 208명)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 3. 측정도구의 구성

#### 1) 결혼의 질

결혼의 질은 선행연구(한경혜, 1993b)를 참고하여, 지난 결혼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비교적 좋았다'에서 '매우 나빴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하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 결혼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 2) 이혼 장애 요인

이혼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장애로 지각된 요인에 대한 조사척도는 선행연구들(곽배희, 1993; 한경혜, 1993a; Previti & Amato, 2003)에서 사용된 이혼 장애 요인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한경혜 외, 2004)에서 요인분석한 결과<sup>2)</sup>에 기초하여 이혼 후 삶의 도구적·정서적 측면에 대한 염려(4문항),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4문항), 가족에 대한 걱정(2문항)의 세 개의 하위 영

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 문항에 대해 이혼을 결심하는데 있어 장애로 지각된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에서 '매우 어렵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들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4이다.

#### 3) 일상생활 스트레스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척도는 선행연구들(Jordan, 1985; Sansom & Farnill, 1997)에서 사용된 일상생활 스트레스 문항들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경제관련 문제(3문항: [예] '경제적 스트레스'), 가족관련 문제(3문항: [예] '자녀 일로 인한 고민'), 사회적 관계 문제(2문항: [예]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의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이혼 후 지난 1년간 일상생활 문제에서 느낀 스트레스의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제영역에서 느낀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4이다.

2) 전체 10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파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을 각각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요인 I : 4문항),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요인 II : 4문항), 가족에 대한 걱정(요인 III : 2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세 요인이 전체 변량의 67.49%를 설명한다.

변수항목 및 요인범주	요인적재값(rotated factor loading)			공통 분산비 ( $h^2$ )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경제적으로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71			.69
혼자서 자녀양육과 살림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73			.75
이혼한다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9			.74
이혼하면 외로울 것 같아서	.65			.59
<b>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도구적·정서적 측면)</b>				
주변의 시선 때문에		.63		.68
결혼생활의 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58		.61
부모, 형제 등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서		.73		.55
결혼은 깨지면 안되니까		.75		.64
<b>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b>				
자식 때문에			.86	.76
부모, 형제 등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62	.75
<b>가족에 대한 걱정</b>				
고유값	2.46	2.46	1.83	
분산비율(%)	24.60	24.57	18.32	
누적분산(%)	24.60	49.16	67.49	
Cronbach's alpha	.784	.741	.635	

## 4)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적응정도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 자긍심의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마다 3 문항씩 총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묻는 척도(한경혜, 1993b)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그리고 이혼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고 이 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문항과 이혼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긍심은 Ryff(1987)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해당 영역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영역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값(Cronbach's  $\alpha$ )이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는 .68, '자긍심'은 .73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이혼 후 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또한,

이혼 후 적응,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의 성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 소득수준, 자녀여부, 이혼 후 경과기간, 이혼제안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처리는 SPSS for Window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이 된 이혼 남성 147명과 이혼 여성 208명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이혼 관련 특성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남녀 모두 30, 40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남성 집단의 경우 40대(38.1%), 30대(30.6%), 50대 이상(21.1%), 20대(10.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여성 집단은 30대(41.8%), 40대(38.9%), 20대

&lt;표 1&gt;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이혼 관련 특성

N=355명 (남성 147명, 여성 208명)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연령	20대	43(12.1)	15(10.2)	28(13.5)
	30대	132(37.2)	45(30.6)	87(41.8)
	40대	137(38.6)	56(38.1)	81(38.9)
	50대 이상	43(12.1)	31(21.1)	12(5.8)
	평균	41.2세	43.7세	39.3세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4(24.3)	16(10.9)	68(34.2)
	100-200만원	123(35.6)	58(39.5)	65(32.7)
	200-300만원	70(20.3)	38(25.9)	32(16.0)
	300-400만원	27(7.8)	15(10.2)	12(6.0)
	400만원 이상	41(11.9)	19(12.9)	22(13.0)
	평균	191만원	223만원	169만원
자녀유무	있음	290(82.2)	116(78.9)	174(84.5)
	없음	63(17.8)	31(21.1)	32(15.5)
이혼 후 경과기간	0~2년	160(45.1)	37(25.2)	123(59.2)
	3~5년	195(55.0)	110(74.8)	85(40.9)
	평균	2.66년	3.42년	2.12년
이혼제안여부	제안함	242(68.2)	75(51.0)	167(80.3)
	제안하지 않음	113(31.8)	72(49.0)	41(19.8)

\* 결측치로 인하여 항목간 사례수는 다를 수 있음.



(13.5%), 50대 이상(5.8%)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두 집단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보면 남성 집단은 43.7세, 여성 집단은 39.3세로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에 비하여 평균 연령이 더 높았다. 소득수준은 남성들의 경우 월평균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인 39.5%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사이가 각각 33% 내외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연령도 높고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이혼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녀유무를 보면, 자녀가 있는 비율이 남성(78.9%)과 여성(84.5%)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혼 후 경과기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한지 3~5년인 경우(55%)가 이혼한지 0~2년인 경우(45.1%)보다 조금 많았다. 남성의 경우는 이혼한지 3~5년인 경우(74.8%)가 이혼한지 0~2년인 경우(25.2%)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이혼한지 0~2년인 경우(59.2%)가 이혼한지 3~5년인 경우(40.9%)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혼을 제안했는지의 여부에서는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이혼을 제안한 비율(51.0%)과 제안하지 않은 비율(49.0%)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제안했다는 비율(80.3%)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2. 이혼한 성인 남녀의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이혼한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이혼 전

결혼의 질은 평균 2.57점으로 척도상의 중간값(2.5점)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혼 장애 요인의 하위 영역 중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와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각각 평균 10.50점과 평균 10.95점으로 척도의 중간값(10점)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에 대한 걱정은 평균 6.41점으로 척도의 중간값(5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경제관련 문제와 가족관련 문제는 각각 평균 9.10점과 평균 8.32점으로 척도의 중간값(7.5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관계 문제는 평균 5.03점으로 척도의 중간값(5점)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남녀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t 검정 결과에서,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 전 결혼의 질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상이함을 나타내는 선행연구(Bernard, 1972)의 결과를 반영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의 문제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인식하는 반면에, 남성은 결혼기간 동안에도 아내의 갈등과 위기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결혼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이재경, 2000) 이혼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혼 장애 요인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혼 고려시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장애요인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혼에

<표 2> 이혼한 성인 남녀의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성별차이

N=355(남성 147명, 여성 208명), 평균(SD)

	전체	남성	여성	척도범위	t값
결혼의 질	2.57(.83)	2.80(.79)	2.41(.84)	1-4	4.402***
<b>이혼 장애 요인</b>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	10.50(3.05)	10.84(3.07)	10.26(3.03)	4-16	1.653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10.95(2.58)	11.39(2.33)	10.64(2.71)	4-16	2.692**
가족에 대한 걱정	6.41(1.53)	6.23(1.52)	6.54(1.54)	2-8	-1.704
<b>일상생활 스트레스</b>					
경제관련 문제	9.10(2.11)	8.65(2.05)	9.42(2.11)	3-12	-3.426**
가족관련 문제	8.32(1.97)	7.87(1.86)	8.66(1.99)	3-12	-3.706***
사회적 관계 문제	5.03(1.36)	5.25(1.32)	4.85(1.38)	2-8	2.668**

\*\*p<.01 \*\*\*p<.001

※ 결측치로 인하여 항목간 사제수는 다를 수 있음

대한 사회의 부정적 통념을 내면화하여 결혼은 깨지면 안 되는 것이고 이혼자를 '실패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경성, 2001; 이재경, 2000; 한경혜 외, 2004)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남성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에서 남녀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 후 경제관련 문제와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이혼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남편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책임이기 때문에(변화순, 1996), 남성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성들은 이혼문제가 불거졌을 때 부모의 반대를 많이 경험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들이 체면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딸의 이혼 사실을 숨기는 등의 태도를 보여 이혼 여성들이 종종 가족들과 대립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Kung, Hung, & Chan, 2004).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힘든 상황을 친구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덜고 근심을 공유하는 반면, 남성은 광범위하고 표면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직장 및 가정 내에서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Belle, 1987; Weiss, 1975). 이는 남성이 여성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도 다르고 그 관계 안에서 추구하는 자원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며(Belle, 1987), 이혼 후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와 감정의 변화가 남성들의 사회적 활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Bohannon, 1970; Weiss, 1975; Brown, 1976, Berman & Turk, 1981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이혼 장애 요인의 하위 영역별 지각정도를 전반적으로 볼 때<sup>3)</sup> 남녀 모두 '가족에 대한 걱정',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의 순으로 어려움을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 경험정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sup>4)</sup> 남성은 '경제관련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가족 관련 문제'의 순으로, 여성은 '경제관련 문제', '가족관련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이혼한 성인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이혼한 성인남녀의 이혼 후 적응수준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는 평균 10.74점으로 척도상의 중간값(9점)보다 조금 높고, 자긍심은 평균 8.67점으로 척도상의 중간값(9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적응수준에서 남녀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t 검증 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 $t=-8.291, p<.001$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평가정도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는 이혼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한경혜 외, 2004),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이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이혼 후 경제적 측면 등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재경, 2000; Diedrick, 1991; Wallerstein, 1986)와 일치한다. 한편, 이혼 후 적응의 다른 하위 영역인 자긍심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이혼 후 적응이 성 특정화된(gender-specific) 이혼

3) 각 하위영역에 포함된 문항의 수가 동일하지 않아 각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들의 총점을 다시 문항수로 나누어서 평균치로 변환하였다.

		남성 평균	여성평균
이혼장애요인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	2.71	2.57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2.85	2.66
	가족에 대한 걱정	3.12	3.27

4) 각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들의 총점을 다시 문항수로 나누어서 평균치로 변환하였다.

		남성 평균	여성평균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제관련 문제	2.88	3.14
	가족관련 문제	2.62	2.89
	사회적 관계 문제	2.63	2.43

&lt;표 3&gt; 이혼한 성인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수준과 성별차이

N=355(남성 147명, 여성 208명), 평균(SD)

	전체	남성	여성	척도 범위	t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	10.74 (2.68)	9.46 (2.45)	11.66 (2.46)	3-15	-8.291***
자긍심	8.67 (2.15)	8.52 (1.72)	8.77 (2.41)	3-15	-1.135

\*\*\*p&lt;.001

과정에 의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없다는 Bevvino와 Sharkin(2003), Booth와 Amato(1991)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 4. 이혼한 성인남녀의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먼저,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효과를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남성의 경우 결혼의 질( $\beta=-.282, p<.01$ )과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 $\beta=-.275, p<.01$ )가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 측면에서 본다면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변수는 결혼의 질이었다. 즉, 남성은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할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았다. 이는 지난 결혼생활을 잘 해 왔었다고 회상하는 사람일수록 이혼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는 Chiriboga와 Thurnher(1980)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남성은 이혼 후 자녀 일로 인한 고민이나 가족 내에

&lt;표 4&gt; 이혼한 성인남녀의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미치는 영향

N=258(남성 113명 / 여성 145명)

독립	종속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			
		남성		여성	
		B	$\beta$	B	$\beta$
연령		-.329	-.123	-.061	-.020
소득수준		.334	.261*	-.041	-.034
자녀여부a		2.730	.271*	-.170	-.013
이혼 후 경과기간		-.195	-.113	.058	.040
이혼제안여부b		.313	.061	.266	.048
<u>결혼의 질</u>		-.914	-.282**	-.837	-.286**
<u>이혼 장애 요인</u>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		-.038	-.047	-.006	-.007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073	-.068	-.125	-.146
가족에 대한 걱정		-.090	-.052	.049	.030
<u>일상생활 스트레스</u>					
경제관련 문제		-.111	-.091	.069	.055
가족관련 문제		-.402	-.275**	.082	.062
사회적 관계 문제		.050	.025	-.559	-.307**
상수		15.110		16.133	
F값		5.732***		3.023**	
Adjusted R <sup>2</sup>		.334		.143	

\*p&lt;.05 \*\*p&lt;.01 \*\*\*p&lt;.001

a.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를 1, 자녀가 없는 경우를 0으로 처리한 가변수이다.

b. 본인이 이혼을 제안한 경우와 부부가 함께 제안한 경우를 1, 나머지 경우를 0으로 처리한 가변수이다.

서의 부담감 등과 같은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남성은 이혼 후 자녀양육 등과 같은 새로운 역할로 인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역할은 사실상 가족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변화순, 1996). 하지만 여성과는 다르게 가족에의 도움 요청 행동이 남성의 유능감과 독립심을 위협하게 된다는 Depaulo(1982, Belle, 1987에서 재인용)의 주장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부담감이 자신의 이혼을 후회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통계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beta=.261, p<.05$ ), 자녀여부( $\beta=.271, p<.05$ )가 남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소득수준은 이혼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므로 이혼 후 적응수준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결과(Spanier & Castro, 1979)와 일치한다. 또한, 남성은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전반적으로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서구의 연구결과(Amato, 2000; Holden & Smock, 1991)와는 상반되지만, 자녀의 존재는 이혼자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족 일상생활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끔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므로(문현숙·김득성, 2000), 이혼자들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옥선화·성미애, 2004). 이혼 남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이혼 관련 특성 그리고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변수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33.4% 설명해 주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의 질( $\beta=-.286, p<.01$ ),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 $\beta=-.307, p<.01$ )가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 측면에서 본다면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변수는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즉, 여성은 이혼 후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는 문제나 직장에서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성의 이혼 적응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 Kistner(199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정서 공유와 정서적이고 도구적인 지원 제공을 남성에 비해 더 중요시하는 여성의 경향을 반영한다(Candy et al., 1981, Belle, 1987에서 재인용). 또한, 여성은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할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았다. 이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지난 결혼생활을 잘해 왔었다고 회상하는 사람일수록 이혼을 잘 수용하지 못하며(Chiriboga & Thurnher, 1980), 지난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기억하는 여성들은 이혼 후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Diedrick & Patricia, 1991; Kitson & Sussman, 1982)와 일치하는 방향이다. 이혼 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이혼 관련 특성 그리고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변수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14.3% 설명해 주었다.<sup>5)</sup>

다음으로,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적응의 다른 하위 차원인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성의 경우, 이혼 고려시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로 장애로 지각하는 정도( $\beta=-.492, p<.001$ ), 경제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 $\beta=-.546, p<.001$ ),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 $\beta=.326, p<.01$ )가 자긍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의 자긍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경제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즉, 남성은 이혼 후 경제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관련 문제를 포함한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가 남성의 자긍심과 관련된다는 Hetherington et al.(1976)의 주장과 같은 방향이다. 또한, 남성은 이혼 고려시 이혼 후 삶의 도구적·정서적 측면에 대한 염려를 장애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후 혼자서 자녀양육과 살림을 하는데 대한 염려와 이혼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상실로 인한 외로움에 대한 우려가 이혼 후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연구결과(Anspach, 1976, Weiss, 1975, Thompson & Spanier, 1983에서 재인용)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런가 하면, 남성은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이혼 후 사회적 활동에서 혼란을 겪는 것이 오히려 이혼 후 변

5) 이혼한 여성의 경우, 회귀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대한 설명력(14.3%)이 남성(33.4%)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는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이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하며, 이혼 여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모델에 투입된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클 가능성을 의미한다.

&lt;표 5&gt; 이혼한 성인남녀의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N=258(남성 113명 / 여성 145명)

독립	종속	자긍심			
		남성		여성	
		B	$\beta$	B	$\beta$
연령		-.081	-.045	-.004	-.002
소득수준		.047	.055	.166	.150
자녀여부a		1.310	.195	-.865	-.071
이혼 후 경과기간		-.181	-.157	.106	.078
이혼제안여부b		-.612	-.177*	.388	.075
<u>결혼의 질</u>		.305	.139	.362	.133
<u>이혼 장애 요인</u>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		-.269	-.492***	-.055	-.070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128	.176	-.046	-.058
가족에 대한 걱정		-.052	-.045	.091	.061
<u>일상생활 스트레스</u>					
경제관련 문제		-.450	-.546***	-.256	-.219*
가족관련 문제		-.124	-.126	.000	.000
사회적 관계 문제		.433	.326**	-.283	-.167
상수		11.877		11.857	
F값		8.162***		3.688***	
Adjusted R <sup>2</sup>		.436		.182	

\*p&lt;.05 \*\*p&lt;.01 \*\*\*p&lt;.001

a.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를 1, 자녀가 없는 경우를 0으로 처리한 가변수이다.

b. 본인이 이혼을 제안한 경우와 부부가 함께 제안한 경우를 1, 나머지 경우를 0으로 처리한 가변수이다.

화한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Hetherington et al.(1977, Berman & Turk, 1981에서 재인용)의 주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이혼제안여부만이 남성의 자긍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77, p < .05$ ). 이혼제안을 먼저 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자긍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이혼 후 적응수준이 더 높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Kurdek & Blisk, 1983; Pettit & Bloom, 1984; Wallensrein, 1986)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혼 제안자가 이혼을 당한 사람보다 죄의식과 자책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Wang & Amato, 2000; Weiss, 1975)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혼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혼 관련 특성 그리고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변수는 자긍심을 43.6% 설명해 주었다.

여성의 경우, 모델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 경제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만이 자긍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19, p < .05$ ). 즉, 여성은 이혼 후 경제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낮았다. 이는 이혼여성들이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는다는 성정현(1998)의 주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이혼 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이혼 관련 특성 그리고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변수는 자긍심을 18.2% 설명해 주었다.<sup>6)</sup>

7) 이혼한 여성의 경우, 회귀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의 자긍심에 대한 설명력(18.2%)이 남성(43.6%)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는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이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긍심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하며, 이혼 여성의 자긍심이 모델에 투입된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혼한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혼과정에서의 경험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서울 및 근교에 거주하는 이혼한지 5년 이내의 사람들로 제한하여 355부(남성 147명, 여성 208명)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이혼한 성인 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장애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 이혼 후 적응수준, 그리고 남녀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와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혼과정에서의 경험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를 나누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남녀간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하였다. 또한 남성이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장애요인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을 결심하는데 있어 어려웠던 부분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자녀, 부모, 형제 등 가족에 대한 걱정을 장애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나, 이혼이 부모, 형제를 실망시키게 된다는 등의 정상가족(the Family)에 대한 신념과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에 기인한다(한경혜 외, 2004).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에서는 그 하위영역에 따라 남녀 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경제관련 문제와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에서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경제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 후 새로운 삶의 확립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Berman & Turk, 1981; Hetherington et al., 1976, 1977; Mendes, 1976; Yang, 1999).

둘째,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와 자긍심으로 측정된 이혼 후 적응수준에서의 남녀차이는 그 하위 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자긍심에서는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기에서 남녀간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남녀 모두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할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았고, 이혼 후 경제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고려시 장애요인의 지각정도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남녀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은 이혼 후 삶의 도구적·정서적 측면에 대한 염려를 장애요인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낮았던 반면, 여성은 이혼 장애 요인과 자긍심 간 관련성이 없었다. 이혼 후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가족관련 문제 및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은 반면, 여성은 이혼 후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았다. 또한, 남성은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와 자긍심 간 관련성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논의가 가능하겠다.

첫째, 성인남녀의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와 이혼 후 적응 간 관련성을 탐색하여 본 결과, 남녀 간 유사점이 관찰되었다. 남녀 모두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평가할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았다. 이는 이혼 남녀가 자신의 이혼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함에 있어 지난 결혼생활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이혼이 아닌, 본인이 원치 않았던 이혼인 경우 자신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은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혼 후 경제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는 이혼남녀의 자긍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성별을 초월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Spanier & Castro, 1979),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이 생활의 안정이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기도 함을 알 수 있다(옥선화 외, 2004).

둘째,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와 이혼 후 적응 간 관련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혼 고려시 장애요인의 지각정도와 이혼 후 적응 간 관련성에 있어서, 남성은 이혼 후 삶의 도구적·정서적 측면에 대한 염려를 장애요인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 관계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이 높는데다 가사노동 등 이혼 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적절히 사회화되지 못하여 여성보다 이혼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Johnson, 1977, Stone, 2001 재인용), 이러한 요소들이 이혼 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옴으로써 남성의 자긍심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Berman & Turk, 1981; Hetherington et al., 1976, 1977; Levinger, 1976). 반면, 여성은 이혼 고려시 장애로 지각되는 요인과 이혼 후 적응수준 간 관련성이 없었다. 이혼의 장애 요인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른 이혼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여성들도 이혼에 뒤따르는 비용을 감수하고 결혼생활을 정리한 후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혼 후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가족관련 문제 및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남녀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았지만,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영역은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이는 남성의 경우,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이경성, 2001; 이재경, 2000; 한경혜 외, 2004) 이혼 후 자신의 이혼 사실을 친구나 동료에게 말하지 못하는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자신의 이혼을 후회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은 가족과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과 함께 자녀와의 접촉이 크게 감소하는 등 가족과 가정의 일상생활, 친숙성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대개 남자라는 점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우리 사회가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후의 자녀 양육문제 및 가족에의 도움 요청 행동이 남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혼을 후회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변화순, 1996). 그리고, 남성은 이혼을 실패자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을 여성보다 더 많이 지각하고 있으므로(이경성, 2001; 이재경, 2000), 이혼 후 가족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부모·형제나 친척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기도 한다는 Thompson과 Spanier(1983)의 주장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가족관계의 상실이 남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낮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남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있어 자녀문제나 가족 내 자신이 느끼는 부담감 등 가족과 관련된 영역이 중요한 영향력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이혼자들이 이혼 과정에서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족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킴으로써 남성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았지만,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영역은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혼 후 자녀문제 및 가족 내에서 느끼는 부담감 등과 같은 가족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털어놓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혼을 후회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은 이혼 후 변화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혼 후 주변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여성의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Miller & Ingham, 1976, Belle, 1987에서 재인용), 이혼 후 사회관계망의 약화 혹은 단절이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옥선화 외, 2004).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이혼 여성에 대한 편견이 남성 이혼자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노영주, 2001) 이혼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이혼을 후회하는 정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혼 남녀 간에 실제 경험정도가 높은 스트레스 영역과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스트레스 영역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혼 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이혼 후 적응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혼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위기이기는 하나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며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주장한 기존 연구

들의 결과(Stolberg, Kiluk, & Garrison, 1986, Plummer & Koch-Hattem, 1986, 변화순, 1996에서 재인용)를 뒷받침하고 있다. 흔히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의 경험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지만(Amato, 2000; Holmes & Rahe, 1967),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Hetherington & Kelly, 2002, Kitson, 1992, Tedeschi & Calhoun, 1995, Malley & Barenbaum, 1997, Tashiro et al., 2005에서 재인용) 이혼 후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자기 유능감 향상, 심적 성숙 등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특히 Marks와 Lambert(1998)는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혼 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숙감과 자긍심에서의 향상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으며 그 효과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혼 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는 것이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혼 후 달라진 자신을 재정의 하며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Hetherington et al., 1977, Berman & Turk, 1981 재인용). Amato(2000), Coontz(1992) 등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이혼 후 주위 사람들과 어울릴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일지 몰라도 자기 성찰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혼'이라는 과정이 삶의 전환점이자 행복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넷째, 이혼 과정에서의 경험과 적응과의 관련성은 적응 수준의 두 가지 하위차원인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와 자긍심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이혼 전 결혼의 질은 이혼남녀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긍심과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이혼장에 요인의 경우, 하위 영역 중 '이혼 후 삶에 대한 염려'의 지각정도는 이혼남성의 자긍심을 낮추었지만,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혼 후 경제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는 이혼남녀의 자긍심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가족관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는 이혼남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긍심과는 관련이 없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세 번째 하위 영역인 사회적 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우, 여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와 남성의 자긍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의 두 가지 차원에 모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 전 과정의 특성인 결혼의 질, 이혼 후의 상황적

특성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남녀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위의 결과를 통해, 법적 이혼 전과 후의 경험 모두 남녀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혼 후 적응수준의 또 다른 하위차원인 자긍심에서는, 남성의 경우 이혼 고려시 장애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가 자긍심에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 후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만이 자긍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 전의 경험은 여성의 자긍심과 관련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함에 있어 법적 이혼 전과 후의 경험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동일한 이혼의 과정적 특성이라도 그 영향력이 이혼 후 적응의 하위 차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 후 적응의 다측면적인 측정의 필요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혼의 과정적 특성을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요인의 지각정도,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정도, 이 세 단계로만 구분해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본 연구에서 과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선정된 변수들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계기라든가 혹은 이혼 후 생활에 대한 준비 등과 같은 과정의 다른 특성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혼의 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특히, 회귀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의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 여성의 적응이 모델에 포함된 이혼과정 관련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혼이 혼인 관계의 법적 해소라는 하나의 사건(discrete event)이 아니라 전이 과정(transition process)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혼과정을 구성하는 일련의 단계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설명하는 좀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둘째, 결혼의 질과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 간 관련성을 탐색함에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혼 전 결혼의 질이 좋을수록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었으나, 이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현재 자신의 이혼을 후회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 결혼생활을 좋게 회상할 가능성, 즉 역인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혼한 성인 남녀의 결혼의



질과 이혼 후 적응 간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차원을 고려한 종단적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panier & Hanson, 1982; Stone, 2001).

셋째,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이혼자 동호회, 한부모 가정 연구소, 이혼가족 지원센터 등과 같은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가장 관련 프로그램 수강자, 복지관, 가정법률 상담소 등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것이므로 샘플 자체가 이혼 후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 선정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의 집단에 속해 있는 대상자를 표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혼 과정에서의 경험, 즉 이혼 전 결혼의 질, 이혼 고려시 이혼 장애 요인, 이혼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이혼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이혼과정에서의 경험과 그 효과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이혼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성별에 따라 달리 구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남녀에 따라 이혼 과정에서의 경험이 이혼 후 적응의 두 가지 하위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성인남녀의 이혼 후 적응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토대로 이혼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3일

□ 심사일 : 2005년 12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13일

#### 【참 고 문 헌】

- 곽배희(1993).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소영·육선화(2005).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 자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3), 199-220.
- 김수정·권신영(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 41-75.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인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혜련(1995).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노영주(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43-63.
- 문현숙, 김득성(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99-120.
- 변화순(1995). 가족해체와 재구성. 여성한국사회 연구회(편).
-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성정현(1998).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연구**, 11(여름), 53-78.
- 성정현(1999).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 93-116.
- 육선화·성미애(200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41-160.
- 육선화·성미애·배희분·이재림(2002).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223-243.
- 육선화·최새은·권소영·강유진(2004). 한부모 가족 :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 왕석순·서병숙(1995). 중년기 적응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한국노년학**, 15(1), 54-73.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영자·장영애(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79-93.
- 이재경(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2(2), 81-98.
- 장혜경·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정문자·이종원(2003). 원가족 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 한경혜(1993a). 이혼과 부부문제에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57-78.
- 한경혜(1993b).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

- 재. 서울: 하우, 79-104.
- 한경혜(2005). 다양한 이혼: 한국사회의 이혼현상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제안.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경혜 · 강유진 · 한민아(2003). 이혼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 한경혜 · 김주현 · 강혜원(2004). 성인 남녀의 이혼 과정 각 단계에서의 성별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93-118.
- 한경혜 · 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4.
- Amato, P. R.(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Amato, P. R. & Rogers, S. J.(1997). A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3), 612-624.
- Arendell, T.(1987). Women and the economics of divorce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3(1), 121-135.
- Aseltine, R. H. & Kessler, R. C.(1993). Marital disruption and dep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4, 237-251.
- Baum, N.(2003). The male way of mourning divorce: When, what, and how.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1(1), 37-50.
- Belle, D.(1987).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 moderators of stress. In Kessler, R. C., Biener, L. & Baruch, G. K.(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 The Free Press, 257-277.
- Berman, W. H. & Turk, D. C.(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179-189.
- Bernard, J.(1972). *The Future of Marriage*. World.
- Bevino, D. L. & Sharkin, B. S.(2003). Divorce adjustment as a function of finding meaning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Divorce*, 39, 81-97.
- Bloom, B. L., Asher, S. J. & White, S. W.(1985). A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newly separated : final evaluatio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9-26.
- Bloom, B. L., Asher, S. J. & White, S. W.(1978). Marital disruption as a stressor: A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43, 867-894.
- Bohannon, P.(1970). The six stations of divorce, 29-55 in P. Bohannon (Ed.). *Divorce and After*.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 Booth, A. & Amato, P. R.(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Booth, A. & White, L.(1980).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605-616.
- Braver, S. L., Shapiro, J. R. & Goodman, M. R.(2005). Consequences of divorce for parents. In M. A. Fine & J. H. Harvey(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pp.313-33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iriboga, D. A. & Thurnher, M.(1980). Marital lifestyle and adjustment to separation. *Journal of Divorce*, 3(Summer), 379-390.
- Cohen, O. & Dekel, R.(2000). Sense of coherence, ways of coping and well-being of married and divorced mother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 467-486.
- Coontz, S.(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ew York: Basic Books.
- Crane, D. R., Soderquist, J. N. & Gardner, M. D.(1995). Gender differences in cognitive and behavioral steps toward divorc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3, 99-105.
- Demo, D. H.(1992). Parent-child relations: Assessing recent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04-114.
- Diedrick, P.(1991). Gender differences in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4, 33-45.
- Goode, W. J.(1956). *Women in Divorce*. New York: Free Press.
- Heaton, T. B. & Albrecht, S. L.(1991). Stable unhappy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47-758.
- Hemström, Ö.(1996). Is marriage dissolution linked to differences in mortality risks fo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366-378.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76). Divorced fathers. *Family Coordinator*, 25(4), 417-428.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77). Beyond father absence: Conceptualization of effects of

- divorce. pp.149-177 in E. M. Hetherington and R. D. Parke (Eds.), *Contemporary Readings in Child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78). The aftermath of divorce. pp.149-176 in J. H. Stevens, Jr. and M. Mathews(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etherington, M., Stanley-Hogan, M. & Anderson, E.(1989). Marital transition: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Holden, K. C. & Smock, P. J.(1991).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solution: Why do women bear a disproportionate cos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51-78.
-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 213-218.
- Hopper, J.(2001). The symbolic origins of conflict in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430-445.
- Hughes, R., Good, E. S. & Candell, K.(199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divorced mothers. *Journal of Divorce*, 19, 37-56.
- Jordan, P.(1985). The effects of marital separation on men. *Family Court of Australia Research Report*, No.6.
- Kistner, M. A.(1994). *Adjustment to divorce as related to stability and change in identity in a midlife cohort of wome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Kitson, G. C.(1992). *Portrait of divorce: Adjustment to marital breakdown*. NY: Guilford Press.
- Kitson, G. C. & Morgan, L. A.(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13-924.
- Kitson, G. C. & Sussman, M. B.(1982). Marital complai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of mental distress in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1), 87-101.
- Kung, W. W. et al.(2004). How the social-cultural context shapes women's divorce experience in Hong Ko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5(1), 33-50.
- Kurdek, L. & Blisk, D.(1983). Dimensions and correlates of mothers' divorce experiences. *Journal of Divorce*, 6, 1-24.
- Kurz, Demie.(1995). *For Richer, For Poorer: Mothers Confront Divorce*. Routledge.
- Levinger, G. (1965). Marital cohesiveness and dissolution: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February), 19-28.
- Levinger, G. (1976).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2(1), 21-47.
- Lorenz, Frederick O, Simons, Ronald L, Conger, Rand D, Elder, Glen H Jr.(1997). Married and recently divorced mothers' stressful events and distress : Tracing change across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1), 219-233.
- Marks, N. F.(1996). Flying solo at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4), 917-932.
- Marks, N. F. & Lambert, J. D.(1998). Marital status continuity and change among young and midlife adults: Longitudinal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9, 652-686.
- Mendes, H. A.(1976). Single fathers. *Family Coordinator*, 25(October), 439-444.
- Pettit, E. J. & Bloom, B. L.(1984). Whose decision was it? The effects of initiator status on adjustment to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87-595.
- Previti, D. & Amato, P. R.(2003). Why stay married? rewards, barriers,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 561-573.
- Price, S. J. & Mckenry, P. C.(1988). *Divorce, Family studies text series 9*, Sage Publications.
- Price-Bonham, S. & Balswick, J. O.(1980). The noninstitutions: Divorce, desertion, and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959-972.
- Raschke, H. J.(1977). The role of social participation in post-separation and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Winter), 129-139.
- Rice, J. & Rice, D.(1986). *Living through divorce*. New York: Guilford Press.
- Ryff, C. D.(1987). The place of personality and social

- structur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92-1202.
- Sansorn, D. & Farnill, D.(1997). Stress following marriage breakdown: Does social support play a rol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6(3/4), 39-49.
- Shapiro, A. D.(1996). Explaining psychological distress in a sample of remarried and divorced pers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7, 186-203.
- Simon, R. W. & Marcussen, K.(1999). Marital transitions, marital belief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111-125.
- Skolnick, A.(1991). *Embattled paradise: The American family in an age of uncertainty*. New York: Basic Books.
- Spanier, G. & Castro, R.(1979).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A qualitative analysis, In G. Levinger & O. Males(eds.), *Divorce and separation: Context causes consequences*. (pp. 211-227). NY: Basic Books.
- Spanier, G. B. & Hanson, S.(1982). The role of extended kin in the adjustment marital separation, *Journal of Divorce*, 5, 33-48.
- Stacey, J.(1996). *In the name of the family: Rethinking family values in the postmodern age*. Boston: Beacon Press.
- Stone, G.(2001). Father postdivorce well-being: An exploratory mod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4), 460-477.
- Tashiro, T., Frazier, P. & Berman, M.(2005). Stress-related growth following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In M. A. Fine & J. H. Harvey(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p.313-33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hompson, L. & Spanier, G. B.(1983). The end of marriage and acceptance of marital termin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03-113.
- Thompson, L. & Walker, A.(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Wallerstein, J. S.(1986). Women after divorce: Preliminary report from a ten-year follow-up.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65-77.
- Wallerstein, J. & Blakeslee, S.(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Ticker and Fields.
- Wang, H. & Amato, P. R.(2000). Predictors of divorce adjustment : Stressors, resources, and defin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655-668.
- Weiss, R. S.(1975).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Weitzman, L. J.(1985). *The Divorce Revolution: The Unexpected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Women and Children in America*. New York: Free Press.
- Wheaton, B.(1990). Life transition, role histories, and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09-223.
- White, L. K.(1990). Determinants of divorce: A review of research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04-912.
- Yang, S. Y.(1999). *Post-divorce adjustment of middle aged women in Korea*. Ph. 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